

‘열공 모드’ 위즈덤 “올해 홈런 45개 치겠다”

〈백범비 45〉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미국 어바인=김여울 기자

‘성범 스쿨’ 새 멤버 패트릭 위즈덤이 KBO리그 평정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는 2025시즌 새 외국인 타자로 클린업 트리오는 재구성했다. 지난 3년 활약했던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아쉬운 작별을 고한 KIA는 위즈덤의 파워를 더해 ‘연패’를 노린다. 위즈덤은 메이저리그에서 3년 연속 20홈런을 기록한 특급 선수다.

그리고 이범호 감독과 동료들은 어바인 스프링캠프에서 그의 실력을 확인했다. 탄탄한 기본기와 남다른 스윙은 기대감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외향적이면서도 친화적인 그의 성격에 동료들이 반색하고 있다.

스름없이 동료들에게 다가오는 ‘빅리거’는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겠다”며 학구열에 불타고 있다. 새로운 언어와 새 동료들은 물론 겸손한 자세로 KBO의 야구까지 배우고 있다.

마침 또 그의 부모가 KIA 캠프가 꾸려진 어바인 인근에 거주하면서 새 팀에서의 새 출발이 순조로웠다. 그는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1차 캠프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위즈덤은 “모두가 나를 열렬히 환영해주었다. 외향적인 성격이고 다가가고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언어도 배우고 싶고 팀원들을 배워가고 싶다”며 “선수

탄탄한 기본기·남다른 스윙·친화력까지 갖춰…시즌 기대감 ‘성범 스쿨’ 멤버로 캠프 소화…“열정적인 팬 빨리 만나고파”

들과 코칭스태프에게 경기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연습과 경기는 다르니까 물어보고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슬기로운 KIA 생활에는 ‘나스타’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나성범을 ‘나스타’라고 부르는 그는 “달리기도 하고, 팔 운동도 시키고, 일찍 일어나게 한다”고 웃음을 터뜨렸다.

나성범은 KIA 선수들 사이에 웨이트 열풍을 일으키면서 ‘성범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김도영은 나성범과 함께 재활을 하면서 더 강한 몸을 만든 ‘성범 스쿨’의 우등생이다.

‘빅리거’도 나성범 레이더망에 포착되면서 ‘성범 스쿨’ 학생이 됐다.

위즈덤은 타격 훈련 시간에 나성범의 훈련용 배트를 직접 들고 그의 파워를 확인하기도 했다. 나성범은 캠프 기간에 1kg의 배트를 휘두르면서 시즌을 준비한다. 위즈덤은 호기심에 나성범의 방향이를 들고 직접 타격을 해보기도 했다.

위즈덤은 “무거웠다. 내 방향으로 치겠다”며 이내 자신의 방향이를 찾아 사람들을 웃게 했다.

“나성범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궁금했다”고 말한 위즈덤은 “나성범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주장으로서도 그렇고 선수로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도와준다”며 나성범을 이야기했다.

KIA는 위즈덤의 파워에 주목하고 있다. 위즈덤

도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들과 함께 할 타석을 기대하고 있다.

김도영과 나성범을 눈에 띄는 타자로 언급한 위즈덤은 “정말 좋은 타자들이다.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겠다. 그들과 함께 타석에 서는 게 기대된다. 올 시즌 많은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자신의 백범비(45)만큼 홈런을 치겠다는 공약 아닌 공약을 하기도 했던 그는 “재미있게 하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경기를 이기려고 하다 보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홈런 세리머니 많이 하면서 3루 코치를 바쁘게 만들겠다”고 웃었다.

‘삼진홀’은 위즈덤의 KBO리그 성패의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이범호 감독은 심리적인 부분에 주목하면서 KBO리그에서 보여줄 다른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위즈덤은 “빅리거에서는 심리적으로 쫓기기도 했다. 볼을 치려고 하기도 했었다. 쫓기지 않고 하다 보면 삼진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또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열정적인 KIA 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 유튜브로도 봤는데 정말 기대된다. 재미있을 것 같다. 빨리 팬들을 만나고 싶다”고 2025시즌 기대감을 말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오른쪽)이 나성범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이 미국 어바인에서 진행된 스프링캠프에서 선수단과 미팅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어바인 ‘종료’...어게인 ‘우승’

1차 스프링캠프 마무리
20일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

KIA 타이거즈의 미국 어바인 스프링캠프가 마무리됐다.

KIA는 19일 어바인에서 진행한 1차 캠프를 마치고 2차 캠프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한다.

KBO리그 팀 사상 처음으로 어바인에 캠프를 차린 KIA는 지난달 25일부터 그레이트 파크 베이스볼 컴플렉스에서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체력 및 기술 훈련 등을 하면서 예열을 끝낸 선수단은 오키나와 캠프에서 실전체제로 전환, 본격적인 경쟁 무대를 이어간다.

19일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선수단은 20일 오키나와로 이동한다. 21일 훈련을 재개하는 선수단은 22일 히로시마를 상대로 연습경기 일정에 돌입한다.

KIA는 이어 한화 이글스(2월 25일), LG 트윈스(2월 27일), 삼성 라이온즈(3월 2일), KT 위즈(3월 3일) 등과 5차례 연습경기를 갖는다.

캠프를 지휘하고 있는 이범호 감독은 “구단의 배려로 좋은 환경 속에서 미국 캠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부상 선수나 나오지 않은 점이 만족스럽다. 오키나와에서 예정된 5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시즌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1차 캠프 종료 소감을 밝혔다.

페퍼스, 정관장 잡으면 ‘새 역사’

오늘 광주서 한판 승부...창단 첫 ‘두자릿 수 승수’ 도전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창단 첫 10승’을 향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페퍼스는 19일 오후 7시 안방인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3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20승 8패·승점 55)를 맞이한다.

지난 5일 GS칼텍스 서울Kixx(6승 22패·승점 22)를 상대로 폴세타 승리를 거두며 ‘9번째 승리’를 합작한 페퍼스는 올 시즌 목표인 ‘두 자릿 수 승수’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페퍼스는 이후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는 부진 속에 연패를 기록하며 컨디션과 경기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시즌 선발 출전했던 미들블로커 염어르영이 최근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을 판정 받았고, 앞서 팔꿈치 통증을 호소한 세트 어원정과 오른쪽 발바닥 인대 파열로 재활 중인 미들블로커 하혜진의 복귀 시점 또한 불확실하다.

지난 14일 현대건설전에서 페퍼스는 미들블로커



페퍼저축은행 시페퍼스 박정아

장위구 블로킹 3개를 포함해 6득점을 올렸지만 백업 미들블로커 임주은이 1득점에 머무르는 등 상대 공격을 막아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

반면 ‘외인 쌍포’ 메가와 부키리치를 앞세운 정관장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관장은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와 폴세타 점

전 끝 승리하며 ‘3연승’을 질주했다. 메가와 부키리치는 이날 51득점을 합작해 상대를 제압하고 승점 1점 차로 2위 현대건설을 턱 밑 추격했다.

어려운 상대를 만나 10승에 도전하게 되는 페퍼스는 조직적인 플레이와 협력적인 팀워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페퍼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블로킹의 중심’ 장위가 상대의 폭발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 미들 블로커 정호영(세트 당 0.50개)에 근소한 우세를 보이는 장위(0.83개)를 앞세워 정관장의 공격을 차단하고 블로킹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올 시즌 정관장과의 상대 전적에서 1승 3패로 열세지만 단 한 번도 셋아웃 패배를 당한 적은 없는 페퍼스가 ‘몽구스’같은 전투력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만하다.

이번 시즌 다양한 ‘구단 최초’ 기록을 작성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온 페퍼스가 정관장과의 경기를 기점으로 침체기에서 벗어나 ‘10승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민경 기자 minky@



굿바이! 식빵 언니

‘배구여제’ 김연경 은퇴 투어
3월 11일 광주서 페퍼스 상대

배구 코트 위 김연경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원정 고별 은퇴 투어’가 펼쳐진다.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주장 김연경은 지난 13일 폭탄 선연을 했다. 그는 지난 13일 GS칼텍스 서울Kixx전을 마친 뒤 “이번 2024-2025시즌을 끝으로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를 결심했다”고 선언했다.

KOVO는 지난 17일 각 구단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남은 정규리그 경기에서 김연경의 은퇴 기념 행사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은퇴 투어는 IBK기업은행 알토스가 지난 16일 흥국생명과의 홈경기 종료 후 자체 은퇴식을 열어준 것이 시작점이 됐다.

각 구단들은 홈경기 시 김연경에게 구단 기념품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김연경의 친필 사진

볼과 유니폼을 팬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오는 3월 11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흥국생명과의 6라운드 경기를 통해 고별전을 치른다.

한편, 지난 2005-2006시즌 V리그 전체 1순위로 흥국생명에 입단한 김연경은 데뷔 첫 시즌부터 주전을 꿰찼고, 그 해 신인선수상과 정규리그 MVP를 동시에 거머쥐었다.

그는 V리그 역대 최다 6번의 정규리그 MVP와 13번의 라운드 MVP를 수상했다.

또 그는 V리그를 누빈 지난 7시즌(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20-2021, 2022-2023, 2023-2024시즌) 모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는데, 이는 V리그 5시즌 이상을 소화한 선수 중 유일하다. /서민경 기자 minky@